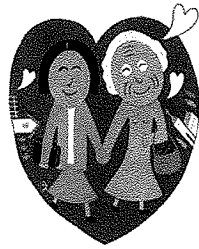


문정희

『우렁이 이야기』

새로 수영자리 돌아난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TV를 끄고
마루에 누워서 별을 바라본다.
별보다는 아무래도 자동차의 불빛이
더 빛나 보이는 아들은 그만 지루해서
두 번이나 하품을 한다.



나는 우렁이 얘기를 한다.
“옛날에 옛날에 새끼 우렁이가
야곰야곰 엄마 우렁이를 다 파먹어서
마침내 어미 우렁이는 껍데기만 남았더라. 그래서
텅 빈 어미 우렁이가 냇물에 동동 떠내려가자
그것을 본 새끼 우렁이가
“야, 우리 엄마 보트놀이 한다”고 깔깔 웃더라 “

아이는 재미나서 와락 달려들며
“야, 어미 우렁이 파먹자”하고 간지럼을 먹이는데
문득 온 몸을 비틀며
내가 파먹어 멀리 떠내려 가 버린
내 어미 우렁이가 그리워
천 길 낭떠러지로 별이 떨어진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7권 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월 8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예수님에게서 온 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띄운다.
어제는 네가 친구들과 거리에서 얘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혹 나와도 얘기할 시간을 내지 않을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낸다
밤이 가까이 왔을 때 너에게 황혼을 보내주었고
지쳐있는 너를 시원한 바람으로 식혀 주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래도 너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너는 나의 친구이기에 여전히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어젯밤 네가 잠드는 모습을 보며 너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다.
그래서 너의 배개와 얼굴에 달빛을 쏟아 주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너에게 줄 선물이 많이 있기에 너와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난 너는 서둘러 가느라고 나와 얘기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
나의 눈물이 빗속에 섞여 내렸다.
오늘은 네가 무척 슬프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이해하기에 마음이 아팠다.
나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할 때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기에.....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랑을 푸른 하늘과 초장으로 네게 고백하고
나뭇잎들이 흔들릴 때 내 사랑을 속삭이고 꽃잎들의 향기로운 숨결로 네게 얘기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의 표현임을 너는 알고 있는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열정보다 더 뜨거운 것이다.
너를 얼마나 도와주길 원하는지 내가 안다면
나의 아버지도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단지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와서 함께 얘기하자꾸나.
나에게는 너에게 줄 선물이 무척 많이 있단다.

◀그땐 그랬지▶ 어머니의 문풍지

스산해지는 늦가을, 겨울살이를 위해 문풍지를 새 것으로 바꿀 때면 어머니는 손잡이 옆에 단풍잎 서너 개를 넣고 붙였습니다. 마땅한 그림한 점 걸 수 없던 형편에 문풍지의 낙엽은 가여운 어머니께서 간직한 마지막 낭만이었습니다. 손가락에 침 발라 구멍을 내면 황소바람 들어온다며 어머니는 조각 창호지로 덧 붙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문풍지도 모두 없지만 전설이 된 그때의 추억은 다시 황소바람 되어 마음을 헤매 듭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비틀거릴 수 없을 것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현명해지기란 무척 쉽다.
그저 머리 속에 떠오른 말 중에
바보 같다 생각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6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 (시 1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455장	다 같이
간 구 하 는 기 도 Pray	가정과 사업, 직장.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22:1-19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믿음의 사람(1)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34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월 예배위원◆

◆1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 내
1	정덕수	오지영		분당>노은속 지찬영
8	정희자	윤경례		
15	지찬영	윤영진		<입구>김종건 장현중
22	최재학	윤주야		
29	현석호	이근평		

	주 일	예배와 모임
25	성탄주일	송구영신예배(31):11:00
1	신년주일	신년축복새벽기도회주간
8		
22		수요예배개강(25)
29	이삭줍기봉헌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사, 이민으로 교회를 찾는 분은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 금년 교회생활목표는 “기도”입니다(마7:8)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을 복을 주시기 위해 손을 펼치십니다
- 교우소식
*<등록> 안정실 장로. 김경민 권사 ☎486-5520. 5 E Auburn St. Takapuna
-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출일> 1월 29일(다섯째 주일)
- 교우사업체 신년축복기도를 위한 심방. <일정> 1월 13일부터- 31일 사이
*교우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을 방문하여 올 해 하나님의 크신 복의 강림을 위해 기도심방을 하려합니다. 적당한 일시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노은속 권사
- 자원하여 봉사하실 교우를 기다립니다.
(1)주차안내 (2)결식자 급식봉사(2개월에 한번씩)
- 예배 후 임시당회 <유아실>
- 향존직분자 모임 <일시>: 15일(주일) 오후 5시 교회
- 남여선교회: 연령의 착오로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기록의 착오로 혼란을 가져오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 수요예배는 18일(셋째 주 수요일)까지 이웃교회 참석 주간입니다
- 청년들의 “인도단기선교 경비모금을 위한 Sausage Sizzle”
* 교회 뒤편 주차장 잔디밭에서 갖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청년들의 기특한 뜻을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시인▶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샤퍼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당신에게 투정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에게 좀더 부드럽게 대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을거구요.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더 열심히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가 사랑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서도 버리지 못할 그리움,
그 엄청난 고통이 두려워
당신 등뒤에서 그저 울고만 있을 겁니다.
바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
다. 가진 것 위에 더 쌓아놓
으려는 노력은 처절하리 만
큼 애처롭습니다. 죽음을 기
억하고 싶지 않으며 살려는
것 또한 큰 욕심입니다.
가장 공평한 진리앞에 겸
손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성
숙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의 끝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마
음, 영원으로 이어지는 마음
으로 사는 모습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